

世界食糧需給 현황과 展望



食糧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적인 식량사정의 악화와 世界經濟질서의 再編期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정책은 이제 획기적인 轉換策이 요청되고있다. 73년 현재 우리나라의 糧穀總需要는 1천 20만 9천톤인데 비해 국내생산은 6백 94만 2천톤으로 自給率은 68%에 지나지 않고있다. 그래서 연간 약 8억달러어치의 外穀을 도입, 外貨總稼得額의 30%를 차지하는 등 國際收支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다.

金 龍 相

<經濟評論家>

世界の 食糧不足

世界の 관심이 石油에 이어 食糧에 몰려있다. 지난해 國際穀價는 石油價格引上率에 못지않게 치솟았으며 일부穀種은 石油價이상으로 폭등했다. 食糧을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世界各國은 食糧確保에 進진궁극했다. 다행히 지난해엔 쌀, 小麥 등 農作物이 豊作을 기록하고 있어 우선은 食難糧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말사스」의인 悲觀論과 自然의 攝理를 信奉하는 樂觀論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세계의 食糧危機는 石油과동보다 훨씬 이전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쌀 輸出國인 泰國은 지난해 3월 이후부터 쌀 輸出을 중단했다. 前年の 쌀생산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쌀輸出을 중단할 때는 價格도 이미 상당히 올라있었다. 72년상반기에 톤당 90달러이던것이 이때는 1백85달러로 1년동안에 배이상 뛰었다. 小麥도 마찬가지로

였다. 「시카고」에서 72년 8월 톤당 64달러하던 것이 1년후엔 1백80달러로 3배로 뛰었다. 이기간 동안 옥수수, 콩값도 배이상 올랐다.

이와같은 현상은 72년에 기록적인 흉작을본데 기인했다. 이해엔 세계 쌀생산은 5%, 小麥은 3%가 줄어들었다. 세계 42개 開發途上國은 總農業生産의 1%가 줄어들었다. 人口增加率을 2%로 잡는다면 실제 食糧供給은 3%가 줄어들었다는 셈이된다.

72년에 이와같은 흉작을 보게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60년대에 세계 食糧생산은 연평균 2.5%정도가 增産되어 人口增加率을 앞지름으로써 食糧需給은 오히려 在庫가늘었다.

「萬年食糧不足國」으로 불리는 印度와 6,7년 동안 계속되는 旱災로 일부 「아프리카」국가에 飢餓현상이 두드러진 것을 제외하고는 세계전체적으로 볼때 食糧供給은 오히려 남아 풀었다.

이때문에 60년대 말에와서 「美國」「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食糧輸出國은 食糧

在庫가 累積, 전국은 耕作면적을 줄이는등 生産調整策을 썼다. 日本만해도 최근 막대한 보조금을 支給하면서 쌀생산을 억제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72년엔 결정적으로 한발이 들었다. 이때문에 소련은 小麥생산이 1천 6백만톤, 印度는 1천만톤이 줄었으며 小麥의 최대輸出國인 美國도 5%, 「오스트레일리아」는 25%라는 비폭적인 감소를 가져왔다.

또 쌀생산이 부진한것은 東南亞일부국가에서 「기적의 밭씨」에 힘입어 전개된 「녹색革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있다.

이에대하여 지난해 食糧需給을 어렵게한 요인은 일부국가가 生産減少量이상으로 많은 量의 食糧을 輸入해간 사실이다. 1천 6백만톤의 小麥생산감소를본 蘇聯은 2천톤의 小麥을 일시에 美國으로부터 輸入, 다른나라가 穀物을 輸入하는데 輸送船을 구하기 어려울정도로 만들어 놓았다.

蘇聯은 이밖에도 飼料穀物 8백만톤을 輸入했다. 印度도 2백만톤, 中共도 5백만톤이란 막대한량의 穀物을 수입했다.

또 南美的 「페루」에서 잡히는 막대한량의 鰐초우미 (멸치)가 72년과 73년에 잡히지않아 상대적으로 穀物의 要需가 늘게 되었다. 또 두번에 걸친 美國의 달러貨平價切下는 美農産物이 海外에서 싸게 팔리도록 함으로써 買占賣惜을 일으켰다. 또 所得增加에 따라 先進國의 肉類소비가 늘어나 肉類부족현상이 야기되었다. 특히 日本의 肉類소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와같이 食糧의 需要는 늘고 供給은 부족하게되자 外國에서 食糧을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은 더욱 食糧확보에 안간힘을 쓰게되어 穀物價格은 계속솟았다. 2년도 안되는사이에

쌀은 8배, 소맥은 4배, 옥수수, 콩등은 3배 내외로 각각 치솟은 것이다.

또 穀物在庫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世界小麥在庫는 52년이후 최하수준인 2천 3백만톤 (최고 69년의 6천 7백만톤)으로 떨어졌다. 日本도 쌀의 在庫가 바닥이 나게되었다. 한때 쌀을 飼料로까지 썼으나 이제는 輸出할 여력이 없어진 것이다.

世界耕作可能 土地推計

지역별	土地	總土地 (억 ha)	潛在可 耕 地	栽培地 (%)
아 프 리 카		30.1	7.3	1.5(22)
아 시 아		27.4	6.3	5.2(83)
大 洋 洲		8.2	1.5	0.2(13)
유 럽		4.8	1.7	1.5(88)
北 美		21.1	4.7	2.4(51)
南 美		17.5	6.8	0.8(11)
蘇 聯		22.3	3.6	2.3(64)
世界 總計		131.5	31.9	13.9(44)

(資料·美大統領科學諮問委)

美國은 이때문에 지난해 콩등 일부 穀物의 輸出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취했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美國은 지난해 農産物輸出이 88% 증가 (총 1백 77억 달러) 史上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그런데 올해에 들어서서는 世界의 食糧供給이 다시 늘어가게 되었다. 지난해 世界의 쌀생산은 기록적 수준인 3억 1천만톤에 달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은 凶作이었던 그전해 生産量 2억 8천 6만만톤 보다 2천 4백만톤(8.4%)이 많은 것이다.

이와같은 풍작은 美國, 印度, 「인도네시아」 등이 大豊을 이루었고 日本, 中共, 泰國 등도 풍작을 거둔데 힘입고있다. 세계 주요 쌀생산국인 中共은 지난해 1억 3백만톤을 수확, 전년보다 4백만톤이, 印度는 6천 6백만톤을 생산, 전년보다 3백만톤이 각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泰國도 1백 34만톤, 「인도네시아」 1백 5만톤, 日本은 52만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쌀 뿐만아니라 小麥생산도 예상된다. 이것은 前年보다 2천 7 백만40톤 (8.8%)이 많은 수량이다.

것으로 예상된다. 쌀 뿐만아니라 小麥생산도 예상된다. 이것은 前年보다 2천 7 백만40톤 (8.8%)이 많은 수량이다.

世界穀物需給실적과 전망

(단위=백만톤)

群別 穀種別	先 進 國			共 産 諸 國			開 發 途 上 國			世 界		
	64~66	69~71	80	64~66	69~71	80	64~66	69~71	80	64~66	69~71	80
쌀(白米)												
生産	15.0	16.7	15.9	64.4	63.8	78.2	93.0	114.5	155.4	172.4	195.0	249.5
消費	14.3	13.7	14.1	64.0	63.5	77.5	94.3	116.4	157.4	172.6	193.6	249.4
貿易	0.4	1.8	1.8	0.4	0.3	0.7	-1.1	-1.9	-2.3	-0.3	0.2	0.1
小 麥												
生産	109.1	112.2	130.8	122.8	142.7	176.3	47.2	63.0	91.1	279.1	317.9	398.2
消費	78.7	87.8	96.2	136.9	147.1	181.8	66.1	82.7	120.4	228.7	317.6	397.9
貿易	32.9	29.2	34.2	-14.1	-4.4	-5.0	-17.8	-21.8	-29.8	-1.0	-0.3	0
穀物 總計												
生産	346.3	403.3	495.7	350.3	401.0	499.3	248.2	301.0	406.6	944.8	1,105.3	1,401.6
消費	328.9	374.2	450.0	364.0	408.6	504.7	263.5	317.3	441.8	956.4	1,100.1	1,396.6
貿易	29.9	30.1	40.9	-13.7	-7.6	-5.4	-14.0	-17.8	-35.2	-0.2	-1.3	0.1

(資料·美農務省:73)

地域別 食糧 動向

① 北 美 洲

美國의 主要 輸出 農産物은 小麥, 옥수수, 大豆, 수수 等인데 同品의 國內生産對輸出比率은 1972/73년의 경우 小麥 77%, 옥수수 23%, 大豆 37%, 수수 23% 等이다.

美國農業은 거대한 生産能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從來 生産은 需要를 훨씬 上廻하여 小麥, 옥수수, 수수의 過剩在庫로 財政負擔의 압박이 계속되었다.

이에 美國政府는 過剩生産을 방지하고 需給均衡을 유지하기 위하여 農耕地의 休耕을 장려하는 반면 과잉제고량을 輸出促進 또는 원조 등으로 減少시켜 왔다.

그런데 72년부터 73년에 걸쳐 소련이 북한 穀物의 大量輸出을契機로 기타국에 대한 輸出을 急増, 在庫는 20年來 最低水準으로 낮아졌다. 이와같이 과거의 在庫過剩狀態에서 供

給不足으로 전환되자 美國은 73年 봄이래 종래 실시해오던 農耕地의 一部 休耕을 撤廢하거나 완화시켰다. 이에 따라 73년 生産량이 늘어났다. 그러나 74년에는 한발이 극심하여 小麥을 제외한 주요곡물 生産량이 전년수준을 하회할 전망이다.

세계의 穀倉으로 되어 있는 美國은 世界需要增加에 따라 72/73년의 農産物輸出額은 US \$129億을 기록, 史上最初로 US\$100億臺를 돌파, 農産物 貿易에 있어 US\$56億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國際收支 改善에 크게 기여했다.

73/74年度에는 3/4分期까지의 실적이 US \$158億을 기록, 同年度 全體實積은 US\$200億臺에 달할 것으로 展望되어 앞으로 美國의 國際收支改善과 전략수출산업으로서 農業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의 主要 輸出農産物은 小麥, 大豆, 燕麥 等인데 小麥은 國內生産에서 餘剰을 輸出

比率은 극히 높으나 總輸出에서 占하는 農產物 比重은 그렇게 높지 않다.

② 中 南 美

알젠틴은 廣大한 土地資源을 背景으로 小麥 옥수수, 牛肉 等の 大規模 經營으로 農業은 重要한 輸出産業이 되고 있다.

小麥은 生産의 振幅이 커 72/73년에는 前年の 減産으로부터 回復되었으나 73/74년에는 植付面積의 減少로 다시 減産될 展望이다. 그러나, 앞으로 生産者 價格水準의 引上이 生産을 자극하여 전통적인 輸出國 位置를 회복 유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옥수수와 수수의 생산도 最近急速히 增大되고 있다.

브라질은 天惠의 自然條件과 廣大한 國土資源을 背景으로 農產物 輸出이 全輸出量의 80%를 占하는 農業國이다.

과거의 主要作物은 커피, 사탕, 면화 등이었는데 最近에는 大豆, 옥수수의 生産이 急速度로 伸張, 同品の 輸出이 增大되고 있다.

農業生産은 生産基盤이 아직 未備하고 技術水準이 낮아 기상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어 있으며 아직 광대한 土地가 利用되지 못하고 있는 바, 앞으로 農業開發을 위해서는 生産基盤造成과 輸送體制의 確立 等이 要請되고 있다.

現在 生産이 增大되고 있는 大豆, 飼料穀物 및 牛肉의 輸出增大가 기대되고 있다.

③ 西 歐

EC에서는 畜產物과 飼料穀物을 中心으로 需要가 急速히 擴大되고 있다. 그런데 生産面에 있어서는 EC의 共同農業政策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英國의 EC加盟이 英國의 곡물생산을 자극하여 生産增大 速度는 需要의 그것을 上廻한 것으로 보인다. EC는 현재 穀類는

程度의 自給自足率을 確保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自給體制를 強化할 것으로 보인다.

域內生産增大는 農地面積의 擴大보다는 單位面積當 生産量 增加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飼料穀物은 Oat와 Rye에서 單位當生産量이 높은 옥수수로 植付 面積이 전환되어 同品 生産이 增大됨에 따라 飼料穀物의 自給率이 제고될 것이다.

大豆는 土地條件의 제약으로 生産增大可能性이 적어 植物油脂 自給率 向上은 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食肉에 있어서는 牛肉의 生産增加는 酪農品の 過剩을 조래하는 生産構造에 있기 때문에 牛肉 보다는 豚肉과 雞肉의 生産이 크게 增大될 것으로 보인다.

④ 東 南 亞

東南亞 各國에서는 人口의 急速한 增加와 더불어 所得水準向上에 따라 食糧需要가 穀類를 중심으로 增加되고 있다.

이와 같은 需要增大에 生産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生産基盤이 造成되어 있지 않고 技術水準이 낮은데 특히 米穀生産은 1965년부터 70년까지는 順調롭게 증가되었으나 그후는 「綠色革命」이 한계에 부딪쳐 1971/72年과 72/73년도에는 病虫害의 發生과 異常氣溫 때문에 生産이 減退現象을 보였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있어서 1972/73년의 米穀減産은 食糧不足 사태를 발생시켜 大社會問題化되어 政府에서는 地域間 穀物 移動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國內 供給絕對量이 不足하여 穀物을 大量輸入하지 않을수 없었는데 인도가 450만톤, 인도네시아가 150만톤, 필리핀이 30만톤을 輸入했던 것이다.

한편, 태국은 전통적인 米穀輸出國인데 最近 數年 동안 輸出을 每年 增大시켜 왔다. 그

러나 72/73년에는 米穀凶作으로 73년 6월 全面輸出禁止措置를 취한 바 있다. 73/74년에는 米穀과 옥수수의 풍작으로 米穀은 120만톤, 옥수수는 200萬톤정도의 輸出餘力이 있을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⑤ 濠 洲

오스트렐리아의 主要 農產品은 羊毛, 小麥, 牛乳, 乳製品 및 食肉(牛肉, 羊肉) 등인데 生産量의 3/2以上이 輸出되고 있다. 따라서 農業은 호주의 最大 輸出産業이 되어있다.

小麥은 72/73년의 심한 한발로 生産量이 大幅減少되었으나 73/74年度에는 政府의 증산정책과 氣象條件이 알맞아 生産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輸出餘力이 增大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牛肉은 輸出需要가 急増함에 따라 最近生産이 급증추세를 보였으며 羊肉은 羊毛價格이 앙등함에 따라 생산이 減少趨勢를 보였다.

⑥ 蘇 聯

蘇聯의 農業生産은 73년의 凶作에서 벗어나 73년에는 豊작을 기록했다. 蘇聯은 제 9차 5개년계획기간의 第3次年度까지의 農業生産은 제 8차 5개년계획기간중 3차년도까지와 비교하면 13%의 生産增加率을 보여 同期間 동안의 人口增加率 4.9%를 훨씬 上廻했다.

73년에는 穀物을 비롯하여 野菜, 棉花 등 各種 農産物의 생산이 전년에 비해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農業部門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5개년계획의 3차년도까지 農業材料와 技術개발을 위해 US\$ 92.9百萬을 投入했고 관개와 농지확장을 위해 US\$ 160億을 投入했다 이외에도 農機具製作과 肥料생산에 상당액을 投入했다.

74년에는 農業發展을 위해 73년보다 13%가

증액된 US\$ 237億을 지원할 계획이다.

⑦ 中 共

輸入動向을 보면 1972/73년에는 小麥의 경우 前年度 對比 86% 증가한 5.6百萬톤을 기록했는데 이는 1965/66년 이래 最高水準이다. 同年의 옥수수 輸入量은 90만톤으로 늘어났다. 이와같은 輸入 增大는 72년의 작황부진에 따른 供給量減少에 의한 재고부족을 메꾸기 위해 필요했다.

한편, 輸出은 72年度 水準에서 90%가 떨어진 37천톤에 불과, 과거의 輸出國 位置에서 輸入國으로 전환되었다. 穀物輸入이 늘어나고 大豆輸出은 격감된 반면 中共의 米穀輸出은 71% 增加 1.4百萬톤으로 늘어났다.

73년에는 20년만에 最初로 中共과 美國間의 農産物 貿易이 再開되어 美國의 對中共 農産物輸出은 US\$ 575百萬에 달한 反面 中共의 對美輸出은 US\$ 21百萬을 기록했다.

1973/74년도에도 中共은 穀物 9.2百萬톤 原棉 483천톤을 輸入한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1974/75년에는 輸入量이 減少될 것으로 보인다.

品目別 動向

① 小 麥

73/74年度 世界 小麥 生産量은 367百萬톤을 기록, 前年度의 558百萬톤 보다 9百萬톤이 늘어나 史上最高에 달했다. 國別로 보면 蘇聯이 10百萬톤으로서 가장 많고 다음은 美國, 호주, 캐나다, 中공 順이다.

이와 같이 73/74년도 小麥作況이 好調를 보인것은 氣象條件이 좋아 單位當 生産量이 높았고 栽培面積이 前年對比 5% 增加 約 220百萬헥타에 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世界 小麥價格은 美國産 HRW(13%)의 롯데담 도착가격이 74년 2월에 4센트당 US

\$6.58로 史上 最高를 記錄했던 것이다. 그러나, 小麥價格은 74년 2월을 高비로 그 이후는 하락추세에 있다.

이는 輸入需要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뿐만 아니라 74/75년도 世界 收穫量이 前年度보다 2% 增加한 375百萬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供給事情이 完化되리라는 전망 때문이다. 國別로는 美國, 캐나다, 호주, 알제틴의 생산이 크게 늘어나는 反面 작년에 수확량이 높았던 蘇聯의 作況이 不振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價格이 下落趨勢를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他穀物에 비해 小麥價格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74/75년도의 世界 小麥消費量은 主要國으로의 소비가 줄어들고 기타 國으로 消費패턴이 전환되어 減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在庫狀況을 보면 74년 7월 1일 현재 美國, 캐나다, 호주, 알제틴 등 世界 主要 小麥輸出國 在庫量은 22.4百萬톤으로 1년전에 비해 20%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上記 4個國의 在庫量은 世界의 생산이 늘어나고 소비는 감퇴될 것으로 보여 74/75년도에는 50% 增大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② 飼料 穀物

73/74年度 世界飼料穀物 生産量은 568百萬톤에 달할 것으로 推定된다. 主要國의 生産量은 蘇聯이 97百萬톤, 알제틴이 16.6百萬톤 南阿聯邦이 11.7百萬톤에 各各 달하고 있다.

交易動向을 보면 73/74년도 世界수입량은 70百萬톤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 중 西歐의 輸入量은 31百萬톤이고 日本은 13.8百萬톤을 기록했다. 輸出은 호주, 알제틴, 캐나다, 南阿聯邦 및 泰國의 合計가 17.2百萬톤이고 美國의 輸出量은 40百萬톤에 달하였다.

74년 3월말 현재의 在庫量은 88.2百萬톤으로 最近 수년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75년에도 世界의 飼料穀物 在庫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飼料穀物의 消費水準은 74/75年度에도 계속 늘어나 605百萬톤에 달할 것으로 推定되는데, 이는 EC와 日本의 養鷄와 養豚이 늘어나 需要가 增大될 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이다.

③ 米 穀

世界의 米穀 生産量은 1965년부터 70년사이에는 約 18%가 늘어났으나 1971/72, 72/73년에는 日氣不順과 병충해 발생 등으로 生産量은 減少되었다.

태국의 73/74년 生産량은 13.7百萬톤을 기록 史上最高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精米 120만톤의 輸出餘力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美國은 73/74년에 前年比 12.2%의 生産增加가 展望되고 있으나 來년에는 休耕地가 해제 된다 해도 20~30만 에이커 정도밖에 늘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④ 大 豆

1973/74年度의 世界 大豆 生産量은 前年度 對比 約 20% 增加된 것으로 推定된다. 美國에서는 休耕地가 해제되고 파종기의 日氣가 良好하며 옥수수보다 大豆로 生産을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生産量은 72년 보다 22%가 늘어난 43百萬톤을 기록했다.

또한 브라질의 生産량이 1972년의 360만톤에서 73년에는 460만톤으로 늘어나고 74년에는 4~5월의 수확량이 700만톤에 달하였다.

그런데, 大豆需要는 유럽과 日本 등 主輸入國에서 73/74년초에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73년 여름의 高價格으로 國家에 따

라 畜産物 生産을 하향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價格動向을 보면 73년 6월에는 톤당
가격이 US\$ 385에 달하여 72년 1월의 US\$
111보다 3倍以上 上昇 史上最高를 기록했으
나 74년에 들어서는 하향세를 보여 5월 현재
는 US\$ 203로 떨어졌으나 최근엔 다시 상승
추세에 있다.

在庫狀況을 보면 主輸出國인 美國의 74년
10월 1일 移越在庫量은 前年度의 2百萬톤보
다 倍以上 增大된 5.5百萬톤에 달할 것으로 추
정된다.

⑤ 畜産物

酪農製品의 경우 73년에는 北美과 뉴질랜드
에서 減少를 보였으나 1974/75년에는 旱魃이
재발하지 않는 한 정상수준으로 생산량이 증
大될 것으로 보인다.

美國에서는 74년에는 生産이 73년 水準을
下廻할 것으로 보이나 75년에는 늘어날 것으
로 보인다.

앞으로 生産增大는 美國과 日本에서의 輸入
需要 增大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런데 EC에서
는 생산이 약간 增大되는 反面 호주에서는 減
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 비추어 OECD에서는 74년 말에
在庫量이 많지 못하고 따라서 供給이 충분치
못하여 價格은 高水準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았다.

長期 需給 展望

食糧 需要 豫測

FAO가 지난 11월에 開催된 世界食糧會議
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0年代와 80年代의
世界 食糧 需要는 年平均 2.5%씩 增加된 것으
로 展望했는데 이는 人口增加에 의해 2%가,
所得增大에 의한 購買力擴大로 0.5%가 늘어

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는 國家間 差異가 현저하여 先進
國은 年平均 增加率이 1.6%인 반면 開發途上
國은 3.7%로 앞으로 開發途上國의 食糧需要
가 大幅增大되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穀物需要를 보면 70년의 12億톤은
85년에 17億톤으로 增大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需要增大는 開發途上國이 현저하여 이들의 需
要量은 70년의 6億톤에서 85년에는 9億톤으
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同期間동안 先進國
의 需要量은 620百萬톤에서 780百萬톤으로 약
간의 증가밖에 보이지 않을 것으로 豫見되고
있다.

供給 展望

과거 1961~63년부터 73년까지의 生産趨勢
에 따라 1969~71년부터 1985년까지의 供給展
望을 내리면 年平均 生産增加率은 先進國이
2.4%, 開發途上國이 2.6%, 東歐 및 蘇聯이
3.5%로 豫想된다.

이와 같은 展望에 의하면 全體的인 食糧需
給事情은 均衡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
나고 있지만 開發途上國은 食糧需給均衡을 유
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 현재도 先進國은 食糧生産이 需要를
앞지르고 있는 反面 開發途上國은 그 반대인
실정에 있다.

需給 均衡 維持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農作物 生産에 있어
氣象變化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年
度別로 國家에 따라 凶作이 될 수도 있으나
72년과 같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일은
드문 일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天氣變化에 對備한 食糧의 安定
的인 供給을 위해서는 새로운 在庫政策의 실
시가 요청되고 있다.